

통상이슈 정례브리핑

2013.10.23(수) 10:30, 최경립 통상차관보(산업통상자원부)

1. 모두 발언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6월 신통상 로드맵 발표하면서 브리핑을 가진 후에 4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서 뵈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매월 1회의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정례브리핑인 오늘은 주요 통상문제 동향과 최근 FTA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처음 하는 브리핑이니까 조금 부드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 통상 동향으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SPS 정례회의 결과와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면제 추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일본은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WTO 동·식물 위생검역조치위원회 SPS위원회입니다. SPS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되어있고, 또 우리 정부가 세습이 검출된 수산물의 경우 기타 확충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일본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 조치가 현재 과학적인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WTO/SPS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잠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측에 대한 추가 질의서를 통해서 일본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입수·분석한 후 양국 간 전문가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고, 아울러 일본이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면제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10월 18일에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웨이버(waiver, 의무면제)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의무수입물량을 2.3배 정량하는 등 협상 참여국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잠정 합의가 도출됐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이 쌀 이외 분야에서 추가로 다른 요구들을 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두 차례, 총 17년간 유예했고, 당초 WTO 농업협정에 근거해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시도했으나 회원국들이 반대해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의무면제를 요청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면제 협상은 따라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영연방 3국과의 FTA 협상 재개, 한-인니 FTA 제6차 협상 개최 등 최근 FTA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연방 3국 FTA 협상 재개문제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국과의 양자간 FTA 협상이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이런 영연방 3개국과의 양자 FTA협상을 금년 중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재개할 계획입니다.

공식 협상이 중단된 후에도 이들 3국가는 비공식적으로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 협상을 재개하는 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최근에 도출했습니다.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한-캐나다 FTA는 우리 측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허수준과 캐나다 측의 자동차 관세철폐 수준이 주요 쟁점이고, 한-호주 FTA의 경우에는 우리 측의 쇠고기 등의 양허수준과 호주 측의 자동차 관세철폐 수준, 그리고 ISD 포함여부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 측의 농산물 양허수준과 뉴질랜드 측의 공산품의 관세철폐 수준, 농산물 협력, 인력이동 개선 등 우리 측 관심사항의 달성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3국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광물,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공산품의 수출확대와 함께 철광, 무연탄, 원목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식 협상 개최에 앞서서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상이 재개되면 상호 이익의 확보와 민감성에 대한 고려 원칙 하에서 조속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니 CEPA 제6차 협상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니 CEPA는 2012년 3월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에 지금까지 총 5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산업부는 상품, 협력, 투자, 서비스 등 잔여 쟁점 분야의 타결모색을 위해서 11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제6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인니 CEPA가 타결이 되면, 신 정부의 통상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신흥국과 추진하는 상생형 FTA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베트남 FTA 제3차 협상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한-베트남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가 선언되었고, 지금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있었던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타결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협상 가속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있었던 제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에 기초한 분야별 협상이 이루어졌고,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을 시작하는 등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협상범위가 합의되지 않았던 경쟁,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베 FTA도 한-인니 CEPA와 함께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차 한-EU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3차 한-EU 무역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Karel De Gucht(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 통상담당집행위원이 공동 의장을 맡은 이번 무역위에서는 한-EU FTA 이행 2주년을 맞아 양측 간 무역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산하위원회 및 작업반 활동,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인한 협정 개정 작업과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무역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한-EU FTA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하에서도 대체로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행 관련 제반사항들을 더욱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실제로 양측 간 투자와 교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산업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대응체계 구축, 아프리카와의 산업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관세 장벽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의 비관세 장벽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했고, 9월 30일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비관세 장벽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11월 초에는 민·관 합동의 1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해서 관련 사례를 점검하고, 그 후에는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최되었던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계기로 방한한 아프리카 인사들을 초청해서 제6차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동 포럼에는 아프리카 에너지자원장관과 에너지 기업 CEO 등 20여명이 참석했고, 또 한국 기업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해서 산업 및 에너지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모잠비크, 탄자니아, 카메룬 등 3개국 에너지장관과는 양자회담을 통해서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우리 차관님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계몽할 수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우리 출입 기자들이 제법 친숙한 이슈들일 텐데, 사실 필리핀 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엽적인 문제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당히 파격적인 필리핀이 패키지를 내놨지만, 결국은 유예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경고음일 텐데요. 우리나라 매년 어쨌든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개방이나', 아니면 '비개방이나' 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슬슬 '정책방향을 다져놔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 정책방향이냐?' 라고 하면 절대 답 안 해주실 테니까,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사건을 전제로 '관세화 유예나', 아니면 '유예 아니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약간 사건을 여쭙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관세화 유예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에 필리핀에 사실 꺼낸 카드가 안 먹혔잖아요. 마라케쉬 협정 웨이버(의무면제)가 안 먹혔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 만약에 그 유예를 가정한다면 어떤 남은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카드가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적인 의견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말씀드리면 여파가 클 것 같아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 등 이해단체와 그리고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버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웨이버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필리핀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WTO 체제 하에서는 웨이버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웨이버 협상에 들어갔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여기에는 얘기가 언급이 안 됐는데요. 솔직히 제가 출입을 오래 하지 않아서 영연방, 한-인니, 한-베트남 어떻게 되는지 오늘 새롭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슈가 이슈인 만큼 한-중 FTA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농수산 어업분야의 피해보전,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런 것이 있던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짧게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엿그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가지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중 협상과 관련해서 농수산 분야와 같은 **분야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 보호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가면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책의 구체적인 모습은 역시 협상결과의 윤곽이 나온 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번 한-중 FTA협상은 과거에 협상이 끝나고 나서 대책수립을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협상 과정에서 협상과정을 계속 점검하면서 함께 대책도 수립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지금 재판을 담당할 패널위원과 위원장까지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위원들하고 양측이 만나서 재판 일정에 합의를 하고, 그 후에 양측 의견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진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지금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과 일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재판부 구성까지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로 재판부가 구성되고 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2~3년 걸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질문> 그 위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답변> 그게 중재재판부입니다.

<질문> TPP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보고 싶은데요. 조금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시한이 원칙적으로는 지금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부처 간에 입장을 차를 보인 것 말고는 별도로 진행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TPP 가입여부나 향후 진행에 관련해서 산업부 내부에서 그동안 진전이 있었는지, 의견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TPP협상은 지금 협상 참가국들끼리는 연말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들이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쟁점이 남아있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TPP협상은 워낙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들 정부입장은 가능하면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참여여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지금 협상 진행 동향이나 또 이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탁드립니다 대로 상당히 부드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매월 1회 이런 정례브리핑을 가질 계획입니다.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